

8월 10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8월 10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고용 훈풍'에 4주째 상승틸레이	고용시장이 회복 신호를 나타내면서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 7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날에 비해 113.81포인트 (1.23%) 상승한 9,370.07로 마감했고 나스닥지수는 27.09포인트 (1.37%) 상승한 2,000.25를 기록했다. S&P500 지수도 13.40포인트 (1.34%) 오른 1,010.48로 장을 마쳤다. 주간상승률은 다우지수가 2.2%, 나스닥과 S&P500 지수는 각각 1.1%, 2.3%를 기록했다. 뉴욕 증시는 미국의 7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안정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개장초부터 상승세로 출발했음. 미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확신으로 투자자들이 매수 주문을 내놓으면서 3대 지수 모두 장중 줄곧 견조한 움직임을 보인 끝에 4주째 상승 랠리를 이어갔음.
고용 '서프라이즈', 실업률 하락반전	미 노동부는 지난달 비농업 고용자수는 24만 7,000명 감소하는 데 그쳐, 전달의 46만 7,000명보다 감소폭이 둔화됐다고 밝혔다. 시장 전망치인 27만 5,000~32만 5,000명보다 소폭이 적었음. 이로써 2007년 12월 경기침체가 시작된 이후 지난달까지 총 67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지만 월간 고용감소가 70만명에 달했던 올 1월에 비하면 고용시장 안정추세가 자리를 잡은 것으로 풀이됨. 가계조사를 통해 집계되는 지난달 실업률은 9.4%로 전달에 비해 0.1%포인트 감소하며 지난해 4월 이후 15개월만에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금리 조기인상 기대, 달러 강세	미 고용지표가 호전되면서 달러화 가치가 강세를 보였음. 뉴욕 외환시장에서 오후 4시10분 현재 달러/유로 환율은 전날에 비해 1.2% 하락(달러가치 상승)한 1.4171달러를 기록했다. 달러화 가치는 엔화에 비해서도 2.1% 상승, 엔/달러 환율이 97.49엔까지 올랐음. 고용지표 개선으로 미국경제가 회복되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조기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달러화 강세 배경이 되었음.
IMF "한국 올해 성장률 -1.8%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1.8%로 1.2%포인트 상향 조정했음. 내년 전망치는 기존의 2.5%를 유지했음. 기획재정부는 9일 IMF 이사회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우리나라와의 2009년도 연례 협의 결과 보고서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제목	주요 내용
원자바오 "경제정책 방향 변함 없다"	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최근 며칠 동안 장쑤성을 방문 중인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 정부는 국내외적인 경제 성장세가 위축 돼 있는 동안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안정된 통화 정책을 혼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 총리는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적절한 통화정책 완화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이 여전히 난관에 처해 있으며, 국제 경제 환경도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부 수요 둔화에 따른 압력도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제조업 2분기 성장률 36년來 최고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분기에 실질기준 제조업의 전기 대비 성장률(계절조정)은 8.2%로 지난 1973년 4분기(8.2%)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조업의 전기 대비 성장률은 작년 1분기 1.2%, 2분기 1.7% 등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 3분기에는 0.1%로 둔화. 급기야 4분기에는 -11.9%로 추락했고 올해 1분기에는 -3.4%로 하락세를 지속했다가 2분기에 가파르게 반등. 환란 당시의 제조업 성장률은 1998년 1분기 -7.5%, 2분기 -2.0%에서 3분기 0.5%, 4분기 6.8% 등으로 올라왔으나 올해만큼 가파르게 상승하지는 않았음. 한국은행 관계자는 "제조업은 서비스업 등 다른 분야보다 해외발 경제적 충격에 약하다"면서 "따라서 경제위기로 급속하게 내려왔다가 이번에 반등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